

대학의 취업 서비스와 해외 인턴십



신 광 영 | 중앙대학교 학생지원처장

해외 인턴십으로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 인턴십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장기 인턴십으로 나누어진다. 해외 장기 인턴십의 경우,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해외 단기 인턴십은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인턴십을 연결시키는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I. 새로운 과제 : 대졸 취업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과 실업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거의 200만에 가까운 실업자가 생겨났다가 다시 50~6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청년 실업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졸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대학들도 이제 취업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고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경기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문제는 더 복잡한 경제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대학 차원의 정책들도 점차 대학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

되기 시작했다.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졸업생들의 취업은 학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학이 졸업생들의 취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경쟁이 대학입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취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마친 후의 사회 진출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취업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은 취업과 관련된 각종 상담이나 구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한국 대학들은 더 이

상 취업의 세계와 거리가 먼 상아탑이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전문기관이 되었다.

II.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의 경우, 학생 취업관련 기관은 학생지원처 산하 취업정보센터로서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취업 상담, 국내 장·단기 인턴십, 취업설명회, 취업관련과목 운영, 면접 훈련, 각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등이다. 취업 상담은 취업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담원 가운데 학생들의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상담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영어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외국인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영어 이력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대학교의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프로그램과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전산망 운영이 있다. 리쿠르트 정보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업정보센터가 취

중앙대학교는 국외의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기업이나 국제기관에서 요구되는 인력수급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기관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 많은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태이다. 해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력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업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 정보 이외에 일자리 매칭 시스템, 멘토클럽, 동문관리 기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고용안정센터와 협정을 맺고 있으며, Work-Net을 이용하여 서울 남부 지역의 채용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악고용안정센터와 협정을 맺고 있고, 강남고용안정센터와 협력관계를 맺어 각종 학내 취업관련 행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은 국내외 인턴십과 취업관련 과목 개설 및 운영이다. 국내 인턴십으로는 국내 대기업과 경제 단체들을 대상으로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2개월 단기 인턴십과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인턴십이 있다. 단기 인턴십은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지난 1학기까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받는 학생들이 수당을 지급받았다. 장기 인턴십은 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에 연수가 이루어진다. 해외 인턴십도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 인턴십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장기 인턴십으로 나누어진다. 해외 장기 인턴십의 경우,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해외 단기 인턴십은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인턴십을 연결시키는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

고 있다.

취업관련 대학 프로그램은 취업관련 과목(직업개발 1, 직업개발 2)을 개설하고, 2학점을 인정하는 과목으로 상대평가에 의해서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이다. Pass/Fail 형식으로 운용하던 취업관련 과목들을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훨씬 참여도가 높아졌고, 수업만족도도 높아졌다. 이 과목들은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여 공지사항, 강의자료, 강의후기, 정보교류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용설명회와 취업설명회는 방학을 제외하고 봄 학기와 가을 학기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정보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정보세미나실은 취업과 관련된 모든 강연, 설명회,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생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생회관 내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취업정보세미나실 내부에 취업상담실 2개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설명회를 열고, 즉시 그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일회적인 행사로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은 Job Festival이다. 총학생회와 합동으로 2학기에 Job Festival을 개최하여 구직을 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이나, 취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실습장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Job Festival은 강남고용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개별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은 개별 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이루어

지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 학과가 주관하는 전공 관련 명사들의 특강과 졸업생들의 취업 경험을 듣는 졸업생 특강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특강 경비를 학생 지원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과들이 경쟁적으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 차원의 취업특강의 장점은 전공과 보다 관련된 취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이 후배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졸업생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Ⅲ. 향후 과제

중앙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취업지원 업무는 인적, 조직적 제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턴십의 규모나 지원 비용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연수의 경우 주로 IT관련 전공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기업체 연수인 경우 주로 경상계열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전공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 취업전산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국외의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기업이나 국제기관에서 요구되는 인력수급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기관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 많은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태이다. 해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력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내용의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취업이 전공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체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전공에 관심을 덜 가지고, 토익이나 토플에 몰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학과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공교육과 진로상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일자리 결합에 대한 학과 교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다른 한편으로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채용-취업의 경우 대학교가 속

해 있는 지역사회의 기업들에 취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인재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취업과 관련된 지역의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에 고용안정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학과 이들 기관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으나, 서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일상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광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캠퍼스)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캠퍼스) 소속 연구위원, 한국사회학회 이사, 스칸디나비아비학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학생지원처장으로 재직 중이며,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Research Committee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등이 있다.